

大學 民主化와 ‘發想의 轉換’

沈 允 宗

(成均館大 社會科學大學長)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發想의 轉換’이라는 표현이 새 時代를 포방하는 말로서 상당한 매력을 지니는 것 같다. 즉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舊時代의 유산인 권위주의적 사고의 명백한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제도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사려 깊은 인식에서 이러한 표현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舊와 新이라는 이 시대 구분에 대해서조차 강한 불만감이나 회의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現狀況이 이러한 시대 구분을 허용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거나 유동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난 13대 총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 가능성을 확실하게 포착했고, 그 결과 우리는 현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민주화 시대에 조응하는 자기 변신의 진동을 거세게 겪고 있다. 아마도 大學은 이러한 진동을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경험하게 될 분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우리의 大學이 거듭남의 진동을 겪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제일의 과제는 대학 본연의 권위 회복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창출’ 일 것이다. 이때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란 大學의 중요한 일들이 외부 기관의 독선적인 간섭이나 압력에 의해 처리되는 관행이 불식되고 그것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새로운 관행의 정립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大學의 중요한 構成體인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상호 협력을 위한 동기화의 계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근래 大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민주화 시대의 대학이 창출해야 할 새로운 질서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고 본다. 특히 교수협의회 발족이나 직원 노조의 결성, 학사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요구 등은 大學의 民主化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탐색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원래 民主主義라는 제도는 소수의 상위자가 아닌 다수의 하위자가 조직의 주인이 되는 원리를 신봉한다. 따라서 大學의 중요한 문제들이 상위 기관이나 소수의 보직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처리되기보다는 일반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 토론되고 해결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을 선출하여 문교부

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등 대학의 제반 인사 및 학사 행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태세를 갖추므로써 先進性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학교 당국과 단체 협약을 맺는 등의 노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고 있다. 또한 학생은 그들대로 각종 위원회에서의 참여를 정당한 권리로써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이들의 요구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나타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아직은 확실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民主化 자체가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거나 학원 민주화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야 할 사회 민주화가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얼핏 생각나는 이유들로서 언급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일부 대학 당국자들과 기존의 가치 질서에 깊숙이 편입되어 순치되어 있는 보수적인 大學人들이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이들은 기득권의 상실이나 기존 질서의 와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까지의 질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상황의 전환에서 오는 위협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저러한 이유와 자기중심적 논리들을 내세워 민주화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필요한 그들의 협력을 유보하면서 남 모르게 저항한다. 따라서 대학 민주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의 發想 轉換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民主化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당위성을 결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인식의 지평에서 社會 民主化를 大學 民主化로 점목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정신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發想의 轉換'이라는 論理는 민주화를 너무 성급하게 쟁취하고자 하는 일부 급진 세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과격성은 목적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원 민주주의의 着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상을 하루 아침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운동권 학생들의 조급성은 民主化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절대결명의 큰 일을 그르치지나 않을까 하여 걱정된다. 마찬가지로 일부 교수들이나 직원들에게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조급성이 엿보이는 것 같다. 따라서 이들에게서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대학은 국가의 절대 권위에 짓눌려 왔고, 학원 외적인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이 나라 최고의 知識人들을 訓育하는 규범 문화의 산실도 되지 못하고, 研究와 敎育을 지고지선의 사명으로 여기는 상아탑 속의 孤高한 존재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꿈은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꿈을 大學 民主化의 實現이라는 특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大學 民主化를 통해서 박탈 당했던 대학의 권위를 되찾고, 그것을 통해서 대학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제는 대학의 문제를 대학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성숙성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大學人의 發想 轉換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